



통권 81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8. 7. 14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최근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의 설치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3년 이래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구해왔고, 96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이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15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가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새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현재 정부는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연내에 이 기구의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6월 23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우리의 인권상황과 조건에 맞는 국가인권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이 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노현 교수의 사회로 국제앰네스티 Mel James(변호사)씨가 국가인권기구는 무엇이고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본 성과와 문제점 등을 발제하고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 상천 법무부장관은 '건국 50주년 경축 8·15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 하면서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 서약제'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전향제도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차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거니와 정부가 이러한 반문명적 인권 탄압제도인 전향제도를 뒤늦게나마 공식 인정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른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준법서약제'를 도입한다 함으로써 모처럼의 개혁조치에 먹칠을

또다른 전향제도

준법서약 제도를 반대한다

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향제도를 폐지하지만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등에 관한 규칙' 등 부령을 고쳐 국법질서 준수와 폭력을 사용했었다는 서약을 쓰게 하고 검사가 이 서약에 대한 진실여부를 면담하여 확인하는 제도를 갖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준법서약'을 쓰게 하고 심사를 받게 하려는 법무부의 발상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외면한 조치로 보인다. 인간의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제도도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양심에 따른 스스로의 가치 판단에서 이루어 진다. 그러한 내면의 생각을 '좋다', '지키겠다'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강제로 서약하고 더구나 자신의 양심(진실성 여부 등)과 인간 모두를 심사받게 하는 '준법 서약제'는 또 다른 '사상전향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생각을 포기하고 반성하며 체제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요받는 것은 '전향'이나 '서약'이란 이름은 다를지라도 양심의 자유침해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없다.

사상전향제도는 이른바 좌익수들을 공산주의 또는 불온사상을 가진 자로 법무당국이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사상을 포기하고 반성하며 체제에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문서화 하여 '사상전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하는 제도였다. 인간 내면의 생각을 법이나 제도로(강제로) 바꾸게 하려는 이 제도는 일제식민지배수단의 더러운 찌꺼기이며 남북 분단과 냉전시대의 비극적 산물이기도 했다. 일제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만든 법인 치안유지법은 정치활동, 언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였다. 전향제도는 이 치안유지법의 보완물로써 1933년에 일본의 공안검사들이 '사상범죄란 머릿속 생각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므로 그 생각을 바꾸게 한다면 사상 범죄의 재범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일제가 이 '불가역적 전향'을 강제하고 정치범들에게 가장 가혹한 징역생활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확실했던 예외조항'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고 사고와 행동에서의 주체를 모독하고 창조와 진보에로의 무한한 능력을 가로 막아왔다.

우리는 법무부 발표의 전향제도 폐지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인지 "양심의 자유침해" 때문인지 그 진의가 궁금해진다. 혹시라도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서약제도'로 대체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제까지 사상전향제도는 인간을 송두리채 황폐화 시키고 있었다. 지난날 감옥에서 그 대상자들은 이미 인간적 지위에서 제외되었었다. 전향강제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은 목숨까지 빼앗고 있었다. 전향을 하지 않았다 하여 법관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 결정으로 감호 처분을 받아야 했고, 석방돼 나와도 각종 보고와 감시와 제약을 받아야 했다. 또한 40년이 지났어도 70세가 되지 않아 그대로 갇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반인간 반인권 반인권 때문에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향제도와 본질적 차이가 없는 서약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법무부가 구상한 '준법정신'이 정부 스스로 잘 지켜지기 바라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에 반하는 반민주악법부터 없애야 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정신과 국제인권협약정신이 실천되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역죄인들을 아무 조건(서약)없이 석방, 사면, 복권 시키면서 양심수에게 이런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이 옳게 실천되고 민족이 염원하는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의 의지가 분명하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 기층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면 (물론 IMF 체제에서의 고통분담 공동노력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법을 어기며 감옥에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50년 만의 정권교체, 정권 수립 50돌, 세계인권선언 50돌(12.10)등, 돌아올 8.15 민족해방절은 그 어느때 보다 뜻 깊은 날이다. 양심수들은 실정법을 어긴 확신수들이다. 이들에게 다시 법률적 판단으로 석방(사면) 기준을 삼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역사적, 도덕적 판단과 정의 인권 차원에서 전향이니 반성이니 서약이니 하는 부대 조건없이 수배해제, 석방 사면 복권해야 한다.



어떤일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자유 의사에 의하여
강요받을 것은
'전향'이나 '서약'이란
이름을 따를지라도
양심의 자유침해에서
근본적 차이가 없다.

잊어버리려 바둑을 둘때도 증호의 얼굴이 아픈거려

편집부

보랏빛 수건은 대부분 늘 어머니들의 몫이었다. 자식을 차가운 감옥에 둔 어머니들의 한숨, 눈물, 절규가 깊이 배인 그 보랏빛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뜨겁게 만드는 그 무엇이었다. 자식은 감옥으로, 그 어머니는 아들의 석방을 외치며 거리로 달려나가고 없는 텅 빈 집안에서, 혹은 아내의 외침이 들려오는 먼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들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차라리 어머니들처럼 바깥 세상의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아니면 주룩주룩 쏟아지는 장대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내아들을 석방하라”는 절규를 한번쯤 목이 터져라 외쳐 보았으면 가슴이 시원해질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늘 아들 생각에 눈물과 한숨으로 젖어사는 아내를 바라보며 언짢은 마음에 “시끄럽다!”는 소리를 버럭 질러보지만, 속으로 끓아들어가는 아버지들의 가슴앓이는 더욱더 큰 것일런지도 모른다. 푸른 수의에 창백한 얼굴의 아들을 언제나 가슴 속에 담아 두고 사는 한총련 학생 설중호 군의 아버지 설국진 님(70세)을 민가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17년만에 얻은 소중한 아들

“결혼한 지 꼭 17년만에 얻은 아들이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애가 우리에게 온 지 약 스무해 걸렸는데, 꼭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 차가운 감방으로 보내게 되었군요.”

설중호 군(27세)은 설국진 님의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뒤늦게 얻은 아들이라 부모님의 자애와 누나들의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고 그러한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중호군은 잘자라 주었다. “무엇 하나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라고 옆에서 어머니께서 거든다.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카톨릭 가정에서 자랐기에 아들의 신앙심도 깊었다. 80년대 초 마더 데레사 수녀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의 꼬마 설중호 군은 꽃다발을 들고 환영행사에 참가하였다. 천진한 얼굴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성녀 데레사 수녀를 바라보는 꼬마 중호군, 이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아직도 아버지는 소중한게 간직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김수환 추기경에게도 간곡한 탄원서를 올렸다. 당시 중호군의 사진과 함께. 그렇듯 천진한 소년이 이제는 ‘이적단체’인 한총련 가입 및 불법시위 배후조종, 게다가 96년 연대 상황 당시 전경 사망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엄청난 법률적용으로 구속된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만드시 진실을 밝혀져야만 합니다

1996년 8월 15일, 범청학련 통일축전이 열렸던 이른바 ‘연세대 사건’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열망하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폭도와 체제위협세력으로 매도되었던 가슴아픈 사건이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이 사건도 제주도 4·3 사건처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제주도민의 항쟁이 그 진실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데 반세기나 걸렸다면, 학생들의 정의로운 외침이 담긴 연대 사건은 좀더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정부’에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리라,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지난달 후원회 소식지에서였던가요, “대통령의 일만 밝히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일도 밝혀줘야지요”라는 글이 실렸는데 마찬가지로의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일도 밝혀줘야겠지요.”

8월 15일, 자신을 보호할 변변한 장비 하나 없는 학생들을 학내로 몰아부치고, 그 바깥에서는 수많은 진압장비를 동원한 전투경찰들이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언론은 또다른 공격을 가했다. 조선일보 는 연일 학생들을 '김정일의 전위부대'나 '도시게릴라'니 하면서 한총련이 맹목적으로 북을 추종하고 봉건적인 군사위계질서로 가득한 것처럼 성토했다. "그때부터 신문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해두지 않은게 정말 후회가 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얼마나 이 사건을 호도하고 왜곡했는지 밝혀야만 하는 것인데 말이예요."

'치사',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이땅에서 태어난 같은 젊은이들끼리 한쪽에서는 진압과 또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대한 저항의 대치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당시 의경 사망이라는 끔찍한 일은 충분히 예견된 것일런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불운이 학생들에게 벌어졌을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공중에서는 헬기까지 동원되고 그 아래에서는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이 자욱한 최루탄 연기, 이것이 며칠을 비스킷 한 조각으로 버텨야만 했던 수많은 학생들 앞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한 의경의 죽음은 그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중합관 내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유기적인 지휘조직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전경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특수공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옥상에서 돌을 던진 학생들이나 지도부는 학생들의 저항과정에서 진압전경이 혹 다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사에 대하여까지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돌을 던진 점, 누구도 전경의 사망을 원한 것은 전



"결혼한 지 꼭 17년만에 얻은 아들이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애가 우리에게 온 지

약 스무해 걸렸는데, 꼭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 차가운 감당으로

보내게 되었군요."

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때 학생들에게 그 결과인 치사에 대하여 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간혹 역장이 무너지는 한숨만 나지막히 내리쉬고 있던 어머니가 한 마디 거든다. “죽은 전경이 청주대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내 아들과 같이 충청지역 학생이었다가 군에 입대했대요. 내 아들이 소중한 것 만큼 그 어린 학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떠올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치사’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 현실이 원망스러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결국 충청총련 의장으로 한총련 핵심간부였던 설중호 군(단국대 천안교정 총학생회장, 농업경제학과 4)은 간부로서의 애매한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지금 군산교도소에 3년째 수감 중이다. 한편, 얼마전에 내린 민사 판결은 의경 사망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1억 6천만원의 배상 명령을 지시하였다.

아들을 통해 본 감옥 안의 인권 현실

가슴 조이며 보낸 96년 8월의 끔찍한 상황이 흐르고 난 다음, 경찰서 면회실에서 처음 만난 아들은, 얼마나 두드러졌던지 상처투성이의 몸과 오래도록 굼어 쇠약해진 몸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의 정리가 되어갑니다.” 아버지가 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고 당당한 한 사람의 어른으로 그렇게 말하던 아들은 지금, 저멀리 낯선 땅 군산으로 가 있다.

한 달에 두번, 노부부는 군산을 향해 집을 나선다. 제한된 면회이기에 친구들이 가고자 할 때는 아쉽지만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럴때 어머니는 미칠듯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한다.

얼마전 법무부는, 교도소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과의 면회, 전화통화 실시를 허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들의 목소리라도 들어볼 수 있으려니, 내손으로 따뜻한 밥 한끼라도 해줄 수 있으려니, 기대했던 부모들은 그것이 학생들을 비롯한 이른바 ‘공안사범’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예외적인 조치라는 것을 알고 허탈해졌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도 1급, 2급, 3급의 급수가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예 그런 급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회도 제한되고, 책도 제한되고, 독방에 가두어지고... 따지고 보면 통일세대의 젊은이들이 몸바쳐 일하다 구속된 것도 다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녘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조차 파렴치범만도 못한 대우를 받다니요.” 아버지의 생각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비단 내 아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도 엄연히 인권은 있는 것입니다. 교도관들이 함부로 반말하고 그러는 것은 옳지 못해요.” 아버지의 생각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일선 교도관들을 보면 가끔 안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격무에 시달리기는 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중호가 젊은 혈기에 욱하고 다들까봐 늘 이야기하지요, 네가 부딪히는 그들은 지시하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직업인이고 그들의 일은 그 가족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일이다. 입장을 바꿔 잘 생각해 보거라.”

나는 전쟁세대, 아들은 통일세대

처음부터 ‘우리 아이의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일’임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아들의 일을 그처럼 이해하게 되셨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해보았다.

“나는 6·25 ‘전쟁세대’입니다. ‘반공’과 ‘반북’의 생활 정서로 굳어져 있는 그 세대로 다 스러져 가고 4천만 인구 중의 1%에 불과하게 남지 않았죠.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그 이후의 세대, 즉 ‘통일세대’입니다. 나는 ‘카톨릭 남북화해협력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분단의 주체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그 피해자라는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외세와 권력자들이 이땅을 마음대로 금그어 놓았던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먼 사람이 이북사람이 되었나 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공존’이 아니겠어요. 반북대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실에 나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들의 행동을 가로막고 있어요. 한창 나이의 그들에게 희망을 빼앗고, 청춘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현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에요. 명분이 없지요.”

중호군은 이처럼 자신을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아버님 보내주신 편지를 잘받아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더군요. 부족한 저희에게 힘을 주셨다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밤, 아버지는 이러한 생각을 담은 절절한 탄원의 글을 대통령에게 쓰셨다고 한다. “대통령님,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의를 해야한다면 남북대화를 해야하는데 의사소통의 수단이 현재로서는 통신교환뿐이잖습니까. 학생들의 순수한 이 의사소통을 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처사가 아니겠는지요. 학생들의 참 애국정성을 이적행위로 규정지으시는 것은, 대통령께서 재야시절 과거 정권이 용공으로 몰아부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돌아오는 8월에는 부디 옥문을 활짝 열고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큰 축제에 크나큰 사랑의 대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닌데’라며, 좀처럼 아들에 관한 개인적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는 아버지께 언제 아들 생각이 많이 나시냐고 물어 보았다. 잠시 망설이다 쓸쓸하게 돌아오는 대답, “하루 24시간 모두이지,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잊어버리려고 바둑을 둘때도 그놈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자는 시간에만 잊어버리는걸까,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애, 자다가 눈을 떠봐도 먼저 떠오르는게 그놈의 얼굴인걸 보면...”

부디 돌아오는 8월에는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주름진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에 중호군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하루 24시간 모두이지,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잊어버리려고 바둑을 둘때도 그놈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자는 시간에만 잊어버리는걸까,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애,
자다가 눈을 떠봐도 먼저 떠오르는게
그놈의 얼굴인걸 보면...”

동료의 고통에 눈물을 참을 수 없어요

편집부



‘선생의 선생에게

부처준 생일선물, 축하카드, 서신 26일자 잘 받았습니
다. 선생의 볼보라도 더 뜨겁고 그지없는 사랑 참으로 눈물
겹고 이 늙은이의 삶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줍니다. 해포해도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 이만 줄이고.....

이번 생일 선물 역시 성희선생다운 히트작물이었어요. 사
실 소포를 처음 접했을 때 무슨 시집 작가가 갈매 지고 가는 큰
함박한 꾸러미였기에 이거 또 꽃대밭인가?... 뜯어보니, 이
거 갖가지 먹은 것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주위에 있던 몇
친구들과 함께 야! 야! 함성. 난생 처음 보고 처음 먹어 보는
고급 당과류들. 이곳 선생들과 딸랑 교포관과 청소(사당을 청
소하기 위해 배치된 일만 재소자)들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그
야말로 멋진 파티를 열렸어요...

1995년 5월 30일 대전독(獄), 홍경선.’

홍경선 선생님(74세)이 감옥에서 진갑, 일흔 한 번째 생
일을 보내고 밖으로 썬 보낸 편지의 일부다. 그 후에도 선
생님은 감옥에서 세 번의 생일을 더 보내고 지난 3월 13일
에야 석방되었다.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삼십이년만
에.

홍경선 선생님은 1925년 5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
났다. 병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40년 천안 농업학
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선생님은 당시 천안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외숙의 집에서 생활하며 학교
를 다녔다. 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충청남도 농업시험장에
취업이 되어 대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일제는 눈앞에 보
이는 패망앞에서 더욱 광분하여 착취에 착취를 거듭하고
있었고 의식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술렁이던 44년의 일이
다. 당시 충남일보 기사를 지내는 친구들의 영향으로 선
생님은 서서히 반일의식에 눈뜨게 되었고, 말라있던 역사
의식에 더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그 때부터 ‘좌
익’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 이름지어 좌익활동이지, 당시
로서는 완전한 독립을 위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청년운동이었을 것이다. 미군정에 의해 일제보다도 더 혹
독한 탄압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후 선생님의 삶은 고단한 조국의 삶만큼이나 고단하
고 힘겨웠다. 차츰 비틀려져 가는 조국의 일그러진 모습
을 차마 볼 수 없어 단단히 끌어 안고 살기로 결심한 그 때
부터 지금까지도.

47년, 첫 구속을 시작으로 ‘힘은 없어도 싸움도 잘했고

담도 컸던' 선생님은 도피와 구속, 석방과 활동으로 어수선하던 해방정국을 보냈다.

"49년 12월 남로당을 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전쟁이 나기 두달 전인 4월 25일에 부친 형무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수들을 모두 끌어내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니 아찔하더군요. 6월 29일 새벽에 일어나보니 간수들이 모두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당시 형무소안에는 일반잡범들은 별로 없고 여수, 순천사건때 구속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격대로 편성되어 청양으로 내려가던 선생님은 시뻘건 피를 토하게 되었다. 결국 결핵으로 판정되어 부역로 가서 군당의 일을 도왔고, 다시 천안으로 가서 군당의 조직부장으로 일을 하였다.

정전 직전에 입북을 한 선생님은 53년 중앙대학교 제 1분교인 금강학원에 입학해 재교육을 받았고, 56년 송도정치경제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계속했다.

그 사이 55년, 김복실 님과 결혼을 해, 67년 소환되어 남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정혁, 영숙, 순희, 길, 광혁. 3남 2녀를 두었다. 평온한 시기였다.

그리고 삼십 이년간의 끔찍한 감옥살이.

"감옥 얘기가 다른 선생들을 통해 많이 들어 알고 있을테니 구지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광주에서 전향공작에 시달렸는데, 그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당한 사람은 아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고통을..."

'사실 이번 접견을 참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지 덩굴을 헤치고 절령한 고지가 그만큼 희열과 만족감을 더하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이곳 어렸이 정성드려 준이한 선물 '조종약'을 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 그때 흥분, 긴장으로 말미암아 맥박이 제대로 뛰지 않고 '부정맥'으로 시달리면서 책도 못보고 신문정도 보면서.... 이제는 다 나았지만, 조종약을 보내야 할텐데...

1996년 2월 15일 대전 홍경선'

어둡고 긴 시간을 신념 하나로 견뎌온 선생님에게 간혹 들끓처럼 싱싱하고 반딧불처럼 반가운 손님이 있었다. 후원회원인 김성희님의 편지 방문.

93년부터 시작된 편지 교환은 선생님에게 외부와의 통로가 되었고,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혈연외의 사람과는 첫 접견을 한 날, 선생님은 흥분과 떨림으로 인해 잠을 이룰수 없었다. 종이와 펜이 주어지는 아침시간까지 그 감흥을 잊지 않기 위해, 큰 절을 올리던 김회원의 모습을 잊지 않기위해 선생님은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편지를 써 보냈다.

편지가 오고가는 5년의 시간동안 홍선생님은 멀리서만 봐던 '장기수 선생님'에서 때론 인자하고 때론 이것저것 꼼꼼이 챙겨주시는 '할아버지'로, 김회원은 얼굴없는 '후원회원'에서 웅석도 부리고 짜증도 내는 '손녀딸'로 점점 관계가 넓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그 인연으로 출소후 선생님이 첫날 밤을 지낸 곳도 김회원의 집이었다.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제수씨와 연락이 되자 않아 교도소측에서는 저를 갱생보호소라는 곳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갱생보호소라는 곳이 교도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교도소가 독방이었다면 그 곳은 여럿이 있는 감옥이랄까. 짐도 들여놓지 않고 김성희 선생에게 연락을 했죠. 수업이 끝나고 바로 내려왔는데도 시간은 여덟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서울에 도착한게 밤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속에 사회에서의 첫 날밤을 보냈습니다."

강한 의지로 삼십여년을 감옥에서 생활했지만, 선생님에게 사회는 낯설기만 했다. 대전역사에 다다라, 택시에서 내려딛는 첫발이 선생님에겐 예사스런 첫 걸음이 아닌 지라 선생님도 모르게 선생님은 김 회원의 손을 꼭 잡았다. 사회와의 첫대면이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옆에 젊은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서였다. 삼십여년간을 비슷한 연배의 '남성' 만을 보며

생활한 선생님에게 대전역의 넓은 광장에서 실물로 마주치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신기하기까지 했다. 주의를 하는데도 발은 자꾸 헛디뎠었다. 삼십 이년간 평지만을 걸어왔으니 계단에 발이 쉽게 익숙해지지 않아서였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김회원집에 도착해서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택시비는 뭐를 보고 그렇게 척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지, 현대식 아파트의 전등은 어디서 어떻게 꺼야 하는지, 수도에는 왜 꼭지가 없는지……

현재 선생님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생활하신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반쯤은 보라매 병원에서 생활을 하신다. 체장암으로 투병중인 금재성 선생님의 간병인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폐와 위가 좋지 않아 자신도 캄마른 수숫대같은 몸인데도 선생님은 고통과 씨름중인 동지의 곁을 지키고 있다.

“혈압이 터지고 치매가 왔는데도 금선생은 결벽할 정도로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성격이 강해 주변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부터는 게우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게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금선생을 재촉해 무조건 택시를 타고 사당의원으로 갔지요.”

홍선생님은 이십여일간 밤낮으로 동지의 곁을 지키며 병상일지를 썼고, 소변을 받아내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어 병을 수습할수 없는 단계’로까지 오게 만든 금선생님의 완고함을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원망하면서, 고통으로

사위어 가는 금선생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겨우 잠든 금선생님의 머리를 잘 쓰다듬어 빗어주다 훌리게 되는 눈물.

“싸울때는 무릎을 꿇게 하기위해 무릎이 다까지도록 짓이겨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견뎌왔는데, 동지의 고통앞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코끝이 점점 짙은 분홍빛으로 변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선생님의 옆얼굴위로도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선생님의 마음 한 켠에는 금선생님이 회복하리라는 따뜻한 믿음이 자라고 있다. 감옥에서도 선생님은 중병을 앓던 김종호 선생님을 극진한 간호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당시 감옥안에서 위장병과 관절염을 심하게 앓던 김종호 선생님을 위해 선생님은 자신이 밥을 씹어 음식을 넘겨주고, 밤낮으로 뜨거운 물로 무릎을 마사지해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선생님이 병약자로 형집행정지되어 석방되기까지.

홍선생님은 그때처럼 선생님의 간호로 금선생님이 병을 이기고 병원을 나서시길 바라고 있다.

인생의 절반가까이를 감옥에서 보낸 금재성 선생님, 세월의 무게와 거친 고문의 고통도 이겨내신 것 처럼 지금의 통증을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인 홍선생님과 나란히 어깨를 걸고 병원문을 박차고 나와 당당하게 통일의 길을 걸어가는, 듬직스런 금선생님과 왜소하나 강단진 홍선생님의 의좋은 뒷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현재 선생님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생활하신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반쯤은 보라매 병원에서 생활을 하신다.

체장암으로 투병중인 금재성 선생님의 간병인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폐와 위가 좋지 않아 자신도 캄마른 수숫대같은 몸인데도

선생님은 고통과 씨름중인 동지의 곁을 지키고 있다.



한평생을 민중 편에 서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아오셨던 주명순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염원하던 통일조국을 못 본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일찌기 노동을 하면서

인간노동의 참가치 실현에서 민중성을 익히셨으며

식민지 시대, 분단시대를 살면서 민족해방과 통일조국을

자신의 생존조건으로 여기며, 온갖 고난을 서슴없이 받아 안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고통받는 양심수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가 만들어지자 회원으로 가입하셨고

무연고 출소 선생님들 집 마련 사업에 선뜻 큰 몫을 내놓는 것을 비롯,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위한 모든 행사와 사업에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2·3월 사이 민가협에서 벌이는 양심수 석방 거리 서명운동에

그 추운 날씨에도 하루도 빠짐 없이

서울역 광장에 나오시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나오신 허약한 건강 말고도

이미 이 때는 암세포가 몸 속 깊이 잠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쇠갈퀴로 가슴을 박박 할퀴어대는 아픔만큼이나

분단조국을 아파하면서 선생님 못다하신 일들 남은 사람에게 맡기고

가족과 동료들의 오열 속에 다시 못 올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선생님 고이 잠드소서.

주명순 선생님 약력

1923. 12. 26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심.

1931. 4 - 1935 회령군 벽성면 소재 벽성초등학교 4년 졸업.

1935 - 1937 회령에 있는 유선탄광, 아오지의 회암탄광에서 폭탄 분쇄공.

1941 - 1945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전시동원 체제에 반대, 중국(만주) 길림성, 흑룡강성, 하얼빈 등지에서 생활. 다시 함북 아오지로 돌아와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에 가입 활동.

1946 - 1950 인천에서 세계통신사 기자로 활동.

1951 - 195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항소심에서 3년 6월 선고. 병보석으로 출소.

1958 - 1961 최백근(사회당 조직위원회 조직부장)선생과 4월혁명 후 5.16 군사쿠데타까지 민족민주 운동에 헌신.

1965 - 1975 고 박남업(경성의전 졸. 서울, 원산, 평양, 춘천 등에서 내과 의사를 개업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년 옥고를 치

름) 선생과 결혼. 신설동에서 대양의원, 용암동에서 자혜의원을 경영.

1975 - 1979 이른바 '오작교' 사건에 연루, 부군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부군은 5년, 고인은 3년 6월을 선고 받음.

1989. 10. 22 부군 박남업 님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심.

1990 - 1995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통일운동에 헌신.

1995. 11. 29 국가보안법 위반(범민련 관련) 구속. 재판 중 병보석으로 출소.

1996. 3. 25 범민련 남측 본부 부의장으로 선출.

1998. 6. 13 여러 차례 옥고의 후유증과 간암으로 영원히 잠드심.

슬하에 외동딸님 박운경, 사위 신원호, 외손자 신행수, 신재룡 있음

아이들 때문에
등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회원들과
맛있는 것 사오려
하는데 짐이 무거울까봐
걱정하시는 회원님들!
걱정마시고, 북부동반으로
아이도 데려 오시고
맛난 음식도
아이들 사오십시오!!

친구들 보거나.
내가 후원회 산행에 처음 함께 한 것은
봄물결이 일렁거리던 3월 관악산이었다.
10개월된 성재를 등에 업고 포대기를
두른채 산을 올랐던 나는 그 인상으로
사람들과, 산과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후원회 산행은 이렇게 10개월짜리
아기서부터 80이 다되신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반세기를 뛰어 넘어서는
연대감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일종의
신비감마저 감동케 하지만, 동반 자체는
사실 맛있다.
등산은 숨이 거칠도록 묵묵히 땀이
홍건히 배게 해야한다고 생각한 나에겐
더더욱……

6월 산행은 시원스런 화강암으로
멋드러지게 뻗어있는 선인봉이 아름다운
도봉산으로 가게 되었다. 물론 선인봉,
자운봉 등 도봉산의 정상까지
올랐다는게 아니라 도봉산자락에서
신선놀음을 하고 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도봉산 입구에서 도봉공원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랐다. 나무사이로
올려다 보는 하늘은 어느새 태양까지
이글거리는데 우리는 나무울타리 사이를
걸어간 덕에 나무그늘아래에서
산림욕까지 즐기며 산행을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산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10여명이 본대와 떨어져 버렸다.
'귀신이 곡할 노릇' 이었는데 한참 뒤에
따라오는 우리 대열을 위해 본대에서는
준형이를 갈림길에 세워 놓았다 한다.
그런데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있던

준형이도 우리를 못보고 10여명이 되는
우리도 준형이를 못본채 능선까지
약 500m를 내리 올라간 것이다.
그 사이 본대는 깨끗한 물가,
참나무가 만들어주는 나무그늘에 앉아
저마다 싸운 도시락을 꺼내들고
있었던 참이었다. 나는 본대를 찾겠다는
책임감으로 산중턱까지 한참을 뛰다시피
했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고 대신
혼자서 땀나는 산행을 즐겼다고나 할까.
10여명의 낙오한(?) 대열도 능선에 앉아
본대를 원망(?)하며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가방에 있는 도시락들을
밥한톨 안남기고 배를 채웠다.
마음같아서는 어서 본대를 찾아
함께 해야 할 것 같은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지 않는가!
능선까지 올랐던 우리는 본대를 찾아
오던 길로 다시 내려갔고 한참후에 만난
본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한쪽에
밥을 남겨두고 있었다. 진수성찬이고
정감어리다. 밥에 막걸리를 마시고
우리는 마당만큼이나 널찍한 바위에
누웠다.
땀에 젖은 몸에 바닥은 시원하지,
바람 신선하지, 나무 그늘속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파랗파랗 곱기도 하지,
어느새 단잠에 빠져들어 버렸다.
각자 소개와 선생님을 말씀도 듣고
노래하고…
내려올 때는,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던
여섯 살박이 모두리가 결국
열이 높아지는 바람에 등에 업게 되었다.
두리의 열을 느끼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내려와 해열제를 먹이고 금세 싱싱해진

두리를 보면서 정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웬지 남다르게 느껴졌다.
내 등에 열덩어리의 여운이
계속 남아있으나...

분명 제 동기들이 하나씩
늘어날테니깐요.

이렇게 양심수 후원회 산행을
소개하기에는 빠진 무엇이 존재하는 것
같다. 훈훈한 무엇이 있지.
그것은 각자가 와서 채워보길 바라며.

요번 산행때 같이 가자고 20여명 넘게
편지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어쩔
한명도 안올 수가 있었을까. 최소한
한 두녀석은 올거라고 목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6월 산행기를
쓰라는 지면에 산행기라고 할 수 없는



산행소개의 글을 실게 되었다.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
어떻게 유혹할 만큼 글을 잘 썼나
모르겠지만, 자기자신을 정화시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하고.
젊은 너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애들고
업고, 길이 험할려면 뛰어 다니기도 하고,
짐도 들고, 재롱도 떨고 그랬으면 한다.
호뭇하고, 훈훈하리라.....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빌며
현중이가.

7월 산행

달마다 좋은 사람들과 산을 오르면서 삶을 배우네다.
양심수후원회 산행에서 맛보는 기쁨이라고들 합니다(누가?).
간혹 소식지 발간이 늦어져(아이그 죄송해라 00)
산행 날짜 넘어서 소식지가 도착할 때
얼마나 화당하셨어요. 그래서 광고맡음 한마디 드리는데요,
산행은 정기적으로 매달 3째주 일요일이고요.
단, 일요일이 다섯 번일 경우 4째주 일요일에 갑니다.
어느 누구냐(이쁘나 미우나!)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오면 대환영!!

끝으로 공익광고 한마디!
아이들 때문에 등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회원들과 맛있는 것 싸오려
하는데 짐이 무거울까봐 걱정하시는
회원님들! 걱정마시고, 부부동반으로
아이도 데려 오시고 맛난 음식도
많이들 싸오십시오!!

언제 : 1998년 7월 19일(일) 10시
어디로 : 북한산
모이는 곳 : 우이동 그린파크 앞버스 23번, 28번, 좌석 725번/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버스 6번, 6-1번 타세요!
준비할 것 : 맛있는 도시락, 시원한 물, 화비 3천원

지난 4월 13일, 한양대학교 사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하영준(27세) 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유는 PC통신 하이텔 '인터내셔널' 동호회 게시판, 자료실 등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7조 1항),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7조 5항) 혐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하영준 형은 1997년 6월경부터 PC통신 하이텔(ID d2ug) '인터내셔널' 동호회 게시판에 「Race and Class」(켈리니코스 지음), 「광란의 자본주의」(크리스 하먼 저, 책갈피 출판사), 「마르크주의와 공황론」(크리스하먼 저, 풀무질 출판사),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토니클리프 지음, 책갈피 출판사), 「Exception or Symptom」(예외나 상징이나, 켈리니코스 지음) 등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영문 또는 번역, 요약하여 게시함으로써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이러한 논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영준 형은 “켈리니코스과 크리스하먼의 이론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시민혁명사’와 ‘북한초기 국가수립’ 등의 연구를 하려 했으며 넓게는 역사인식론·역사적 사실의 객관성,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 우위성 검증·과, 정치경제학·자본주의에서 공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 독해’를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정이 문제삼았던 책 가운데 「Race and Class」(민족과 계급, 켈리니코스 지음)는 형이 재학중인 한양대 사학과 전공수업교재로 이용되었던 책입니다. 그외의 책들 또한 형이 “시민혁명사”, “역사학연구법” 등의 전공수업을 위해 공부했던 책들입니다. 이 사실은 담당교수인 한양대 사학과 학과장 임지현 교수님이 직접 강의계획서를 증거물로 제시, “서유럽 각국에

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인종문제를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사적으로 접근한” 켈리니코스의 「Race and Class」를 기본교재로 삼아 학생들에게 윤독을 권했다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검정이 문제삼은 위의 책들은 모두 국내 출판사들에서 합법적으로 출간한 책들로 이 책들은 시내 유명서적 어디서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대학 도서관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구요.

다음으로 「Race and Class」의 저자 Alex Callinicos(켈리니코스, 현재 영국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와 「광란의 자본주의」의 저자 Chris Harman(크리스 하먼, 현재 영국 주간지 Socialist Worker의 편집인)은 역사, 정치, 경제학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낳은 영국의 학자로 켈리니코스 교수는 97년 3월 35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초청으로 고려대 대강당에서 강연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수행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켈리니코스과 크리스하먼의 저서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말로 번역되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저서나 논문을 읽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며 “위 두 학자는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학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컴퓨터 통신 검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마저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양현대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영준형의 꿈은 현재 좌절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형은 전공공부를 위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영준형의 무고함이 하루 빨리 밝혀져 다시 우리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래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남 (한양대 사학과 3)

이 편지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안재규 전 경희대 강사씨가

딸 소영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소영에게

장마 더위에 어떻게 지내느냐. 사돈 어른 네외분, 무더운 장마철에 근력이 여
정하시며 문서방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너도 건강하게 지내며, 특
히 네 몸 안에 있는 우리 귀염은 아기도 무럭무럭 잘자라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두루두루 편안하고 가족 모두 명량한 나날을 뜻있게 지내기를 축원한다.

이곳 나도 언제나 똑같은 하루이지만 그래도 잘 보내고 있다.

지금 창밖에는 장마비가 추적대며 내리고 있고, 장마 더위라 그런지 몸이 끈적
거려서 편지쓰기에 좀 멍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오늘 낮 하루를 지내고 저녁밥 먹고 드러누워 달력을 보니 유월달도 마지막이
어서 1998년이라는 한 해도 꼭 절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다 나 또 모르
게 후다닥 일어났다. 내일이 7월 초하룻날, 바로 아버지 생신날이고, 올해는 특히
미수(米壽), 즉 여든여덟의 생신날이구나. 내가 이 나라에서 생을 받아 십대의
소년 때부터 여태껏 내 조국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조국이 찢겨질 때 찢겨진 마음
안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며, 내 모든 삶을 바쳐 원없이 애국의 한길로 살아왔
지만, 이제 내 나이 예순이 넘어 일흔의 길을 두렵게 밟고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나의 고난으로 인해 내가 죽이 당하는 그 슬한 고난도
내 가슴에 맺히고, 그중에서도 더욱 마음아픈 것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한 내 불효이다.

옛 어른들이 지극한 '충'을 바로 지극한 '효'로 통한
다고 했지만 내 인생 지내고 보니, 아무리 지극한 '충'
이라 해도 부모 생각하는 애뜻한 '효'를 어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난다.

아버지의 미수 생신을 영어의 몸으로 맞이하는 내 마
음을 그 불적함이 이 위에 어찌 더하겠느냐!

얼마 전에 '고려가요'의 시 한 편에서 익제소악부(益
齊小樂部)라면서 "목계가(木鷄歌)"라는 노래가 있기에 며칠 전부터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노래로 나오기에 거듭거듭 부르고 있다. 따르 적어서 보내니 너도 할아버
지가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하듯이 불러보도록 하려라.

너와 문서방, 그리고 사돈 네외분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을 이만 줄인
다.

1998. 6. 30. 아버지 씀

목계가 (木鷄歌) 조악(小樂部) 高麗歌後

갈려서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지

안윤정 35세 바이올리니스트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그토록 자유의 세상을
그리워 했지만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제 마음의 반쪽은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선지 어느덧 두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자유의 세상에 있다는 것이 현실인지, 혹은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하는 비현실적인 느낌속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그리워 했던 자유의 세상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그 자유가 제게 너무도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유는 여전히 저의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감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곳이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인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자유를 제한당하는 만큼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무엇, 즉 '강요된 타율'이 인간으로서 자기존재의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유없음'이 괴로운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괴로운 것은 '강요된 타율'입니다.

'자유'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진 천부의 권리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에만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강요된 타율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대로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 수 있을까요? '자유없음'과 '강요된 타율'로 가득 채워진 삶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것이기에, 그것은

그 사람에겐 곧 죽음과도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그토록 자유의 세상을 그리워 했지만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제 마음의 반쪽은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나오기 전 만기날짜가 다가올수록 세상에 나가서 소중한 자유를 되찾게 된다는 설레임보다 그 곳에 두고 나올 수 밖에 없는 동생들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날마다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보기 위해 애를 태웠습니다. 감옥에서의 만남은, 친혈육과 마찬가지로 정을 느끼게 하고, 함께 전쟁터의 포탄 속을 헤쳐온 전우애와 같은 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곳에서 우리들의 사랑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빼앗기고 고립되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조차 힘든 그 어려운 상황속을 함께 건디어 온 사람들이 말이 없어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같이 교도소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혼자만이 누리는 자유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3년 6개월을 사는 동안 학생회 등 한총련 활련으로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온 몇 명의 동생들을 만났고 또 보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이별은 늘상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느낌입니다. 동생들이 자유의 세상으로 나간다는 사실은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이 별의 아쉬움은 너무도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이기 때문이지요. 가는 사람은 남겨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울고, 보내는 사람은 가는 사람의 길을 축복하면서도 헤어짐이 아쉬워 옷다가 울다가 하는 이 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동생들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제가 동생들을 남겨두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오면서부터 2년6개월 이상을 한술밥(?) 먹으며 지내서 정이 들어버린 동생, 의숙이. 여성으로서의 최장기인 10년을 선고받고 이제 6년째를 살고 있는 의숙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서려니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다. 그래도 우린 끝까지 서로에겐 눈물을 보이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비록 바로 뒤 돌아서서 울긴 했었지만요. 의숙이도 웃으며 저를 보내주긴 했었지만 저를 보내고는 울었겠지요. 그 이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대전교도소에는 또 한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한총련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정인데, 제가 나올 무렵엔 항소중이었으나 제가 나온 후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너무 마르고 가냘퍼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작은 몸으로 굳세게 살고 있는 은정이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더 굳세게, 씩씩하게 잘 견디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운 이 여름을 어떻게

견디어 낼지...

제가 나올 때는, 제가 나감으로써 여성 양심수의 숫자가 한명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온 후 두달이 지난 지금 여성 양심수의 숫자는 거의 두배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인간 이기에 감옥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이겠으나, 여성은 신체적 조건에서 감옥생활을 견디어 내기가 훨씬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8·15 사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자신의 삶 속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요된 타율에 의해서 살아야 했던 분들의 고통을, 한 인간으로서 고통으로 헤아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8·15에는 좀 더 넓은 인도적인 시각으로 많은 양심수들이 풀려나올수 있기를, 그리고 여성 양심수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요번 8·15에 교도소 정문 앞에서 의숙이, 은정이를 만나 힘껏 안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웠던 감옥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늘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민가협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출소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안운정씨는 독일 국립 라인란트 음대(아켄), 충남대 대학원 음악학과에서 바이올린 전공.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8년 5월, 3년 6개월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

경찰청 앞 집회는 안된다?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통고'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4월부터 불법 불심검문의 시정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나, 경찰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됨에 따라 6월 24일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열기 위해 서대문경찰서에 6월 19일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20일 오전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즉, 경찰청 앞도

로(의주로)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며, 집회가 열릴 경우, '경찰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원인의 교통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 정문 앞이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문 건너편의 집회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서울시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찰청 앞 보도를 집회장소로 허가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등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6월 24일, 경찰청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당국의 통고에 불복, 서대문 경찰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며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 앞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처분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의 사전억제금지원칙에도 크게 벗어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법판단 근거없다”

-장민성 씨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환 판사)는 6월 18일,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민성 씨는 91년 사노맹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돼 5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장 씨가 △자형집에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고 △당시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으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장씨가 안기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고,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고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 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라며 “이는 재법의 위법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평가하

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역시 재법의 위법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가 “보안관찰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

6월 26일, 유가협 배은심(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회장 등 회원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가족들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것은 명백히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가족 전원을 연행해 마포, 은평, 서부경찰서 등으로 분산, 유치했다.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풀려났다.

부산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7월 1일,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지은주 씨(동아대졸)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단서가 수사기록상의 자백뿐이나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백내용도 객관적 상황과 주요부분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물증없는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검찰,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안기부는 지난해 9월 10일, "지은주 등 동아대 졸업생들이 일본 어학연수를 가 공작원에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귀국한 뒤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얼굴없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11년만에 재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6월 12일, 지난 87년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한 남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 전 경감 등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피해자가 피의자를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기소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사건 신문을 열었다.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장이던 김근태 의원(국민회의)을 고문한 혐의로 10여년째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수많은 시국사건과 조작간첩 사건에서 고문기술자로 활약했다. 전기고문과 관절뽑기 기술이 뛰어나 '출장고문'까지 다닌 이근안은 85년 9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근태씨를 6차례에 걸쳐 전기고문했다. 현재 15년째 수감중인 함주명씨는 1983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7일간 불법감금 당한 채 이근안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당한 후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또한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현재 안동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장형씨는 67일동안 이근안에게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88년 12월 김근태씨를 고문한 '얼굴없는 고문기술자'가 이근안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89년 12월 24일 검·경이 수배를 내리자 잠적해 지금까지 행방을 감추고 있다. 민가협은 이땅에서 고문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89년 2월 21일 이근안을 현상수배(현상금 3백만원)했다.

재판부는 7월 3일 재정신청 사건 2차신문에서 1, 2차에 걸쳐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은 이근안 등 고문경관들에 대해 경찰에 소재탐지 명령을 내렸다. 3차 신문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인권법률상식

근로의 권리

헌법 제 32조는 근로의 권리, 의무에 관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 상이군영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완전고용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취업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취업된 경우에는 적정임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업을하였을 때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

로는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이 있고, 최저임금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로는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하도록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산전산후 유급휴가 등의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배치, 승진 등에 있어 여성에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모성보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정(변호사·자하연법무법인)

- 1 - 늦봄 문익환 목사 팔순 회고 및 늦봄 통일상 시상식(성공회 성당). 문규현 신부와 한겨레신문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팀이 수상함.
- 경찰청, 6기 한총련 대의원 1,100명 가운데 의장 선출 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
- 2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금재성 선생님 취재암으로 보라매 병원에 입원
- 3 - 민주노총 서울지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재벌개혁, 정치개혁' 촉구
- 4 - 보라매 병원으로 금재성 선생님 문병. 청년단체 회원들이 간병하기로 함
- 백태웅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문화제 '하얀 햇살' 열림 (서울대학교 문화관, 서울대 총학생회 주관)
- 5 -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수형 판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래정보센터 백성기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판결.
- 7 - 서울고법 항소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남북여부 사건 간첩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성학, 이진택 씨가 '고문을 못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고문경관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12일 첫재판을 열기로 하다
-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인권연맹이 주는 인권상을 받은 자리에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과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8 - 주명순 선생님 한일병원에 입원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째 감옥살고 있는 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유엔 국제규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 9 - 민가협,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명동성당에서 6월 민주항쟁 11돌을 맞아 각계인사 814명이 서명한 새정부에게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 10 -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스님, 한상범 교수) 주관,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간담회(불교포교원 사회의실)
- 민주개혁, 경제주권회복, 평화통일 염원 '6·10 항쟁 11돌 기념 국민대회' (종묘공원,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주관)
- 6·10항쟁 11돌 기념대회(성공회 대강당)
- 11 - 민가협 제 232회 목요집회. '고문기술자 이근안 처벌촉구' 집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이근안 검거촉구 연설, 함주명(광주교도소 수감중 ·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이근안으

- 로부터 45일동안 고문받음)씨의 누이 함주옥씨의 사례발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사건 사례발표(구속자 정경희씨의 남편 전종권 씨). 최근 학생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사례 발표(고려대 학생), 무죄판결로 석방된 미래통신의 백성기씨 출소인사.
- 12 - 양심수후원회 6월 운영위원회. 활동보고, 재정보고, 출소선생님 종합검진과 구강검진 관련 인의협과 건치에 협조의뢰, 회원사업문제와 회원교육문제 등 협의
 - 서울고법 항소7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 지난 95년 '부여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씨에게 무죄판결. 재판부는 "김동식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함씨에게 자신의 신분(간첩)을 밝혔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
 -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고문경관 16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심문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16명 중 이근안 등 10명이 출석하지 않아 앞으로 두세차례 나오지 않을 경우 피의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신청 받아들이는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이날 재판방청을 했던 민가협 회원들은 예정보다 10분 일찍 재판을하여 재정신청인 김성학 씨가 신문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함.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와 유가협 소속 회원들은 내곡동 안기부 청사를 방문해 과거 안기부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희생자들의 진상규명 촉구.
 - 13 - 주명순 선생님 오전 8시 30분에 혼수상태로 운명.
 - 14 -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체류 중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행동과 말은 대한민국을 부인하지 않고 사회질서 차원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양심수 석방 기준을 제시
 - 6·10 항쟁 기념 시민달리기 대회 '행진 6·10' (한겨레 신문사, 6월 민주항쟁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주최). 민가협,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 2,000여명이 연세대에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까지 달림.
 - 15 - 고 주명순 선생님 장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 주명순 부의장 범민련 장'으로 김포공원묘지에서 하관식.
 - 16 - 서울대 병원으로 임기란 전 상임의장 문병
 -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보라매 병원으로 금재성 선생님 문병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실은 트럭과 함께 판문점을 지나 북녘땅으로 가다.

- 17 -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
를 열고 6기 한총련 대의원 287명과 5기 한총련 대의원 44명
등 모두 331명을 조속히 구속하라고 검찰에 지시
- 18 - 민가협 제 233회 목요집회. 최근 인권침해 사례발표. 국가보안
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동출판사 대표
이상관씨 사례발표(부인 한용숙 씨), 한총련 출범식 관련으로
구속된 충남대생 김세룡 군 사례발표(누나 김세정), 컴퓨터
통신에 글을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구속기소
된 한양대생 하영준 군 사례(친구 김기남)발표와 불심검문의
문제점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 이영태씨가 발표. 가극단 금
강의 노래공연.
- 4월 혁명연구소 창립 10돌 기념모임(4월 혁명연구회 사무실)
- 19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
사회(전치)에 출소 선생님들 종합검진과 구강검진을 위한 협
조의뢰 공문을 보냄.
- 20 - 정부수립 50년 학술토론회 '통일, 그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성균관대, 역사문제연구소와 역사비평사 주최)
- 강인덕 통일부 장관 초청,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을 듣는
다' 토론회(경실련 통일협회 주관, 경실련 회의실).
- 21 - 양심수후원회 6월 산행(37명). 도봉산 구룡사성도원 계곡-용
어촌 계곡에서 도봉산 입구로 내려옴.
- 22 - 부산에 거주하는 김우택, 최상원 선생님이 범추본 회의 참석
이유로 경찰에 연행, 조사를 받음. 23일 풀려남.
- 민가협 어머니들, 임기란 전회장님 문병. 관악 경찰서에 연행
된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윤지혜씨 면회.
- 23 -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토론회(기독교백주

년기념관)

- 24 - 보라매병원으로 금제성 선생님 문병
- 25 - 민가협 제234회 목요집회. 학생 양심수석방 촉구집회. 구학협
이명자(홍익대 김태완 군 어머니) 부회장 연설, 96년 연세대
사건 당시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생들에 대한 사례(박
병언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 발표), 서울농대 총학생회장 박
혼동 군 사례(어머니), 97년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 류순 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중)의 어머니가 수배해제 호소문 낭독. 가극단 금강 노래공
연.
- '말' 7월호를 5곳의 교도소로 발송
- 한총련 대의원 70여명, 명동성당에서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를 위한 농성돌입
- 6·25 전쟁 발발 48돌 맞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햇불
대행진'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주최, 명동성당)
26 - '98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추전(가) 남측추진본부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민간단체 간담회(카톨릭 회관)
- 시흥 해명 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 찾아뵙다.
- 보라매 병원으로 금제성 선생님 문병
- 27 - 보안관찰법 워크샵(인권운동사랑방 주최, 서대문 기장 선교
원). 보안관찰법 이해, 보안관찰법 피해사례, 폐지운동 등에
대한 발제와 약평으로 진행.
- 30 - 5년 이상 장기수 67명에게 영치금 보냄.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보내온 성금중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
을 김태룡, 이화춘, 박영희, 석달윤 가족에게 전달.

회원소식

- 노촌 이구영 선생님의 살아온 이야기 「산정에 배를 매고,
(개마서원 펴냄) 출판기념회가 7월 10일 대학로 학전그린에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지난 6월 15일,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교통사고로
왼쪽 팔목뼈를 다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하다가 27일 조일형 정형외과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전화 876-0947/402호).
- 김선분 선생님이 신우염으로 5월 27일에 한일병원에 입원
하셨다가 일단 퇴원하셨지만 매우 어려운 투병을 하고 계
십니다. 선생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청량리 성마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던 이정규 운영위
원이 이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유치원을 운영하는 모성룡, 나정옥 회원은 '레그, 칼메스
중후군'이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이 유치원 졸업생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알뜰 바자회를 지난 26일 가졌다고
합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 누나(13세)와 함께 사는 이
학생(10세, 초등학교 3년)에게 더 큰 사랑의 손길이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독일에서 양심수후원회를 이끌면서 국내 양심수 석방운
동과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숙씨가 사무실을 방문하
고 가셨습니다.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우영(부천시 소사본3동) 김한상(동대문구 용두2동)
이경걸 · 김정미(관악구 봉천6동) 정철민(은평구 녹번동)
김소선(부산시 괴정1동) 동그라미(공주시 옥룡동, 주부모임)
서재철(종로구 운니동) 박현영(관악구 의료보험조합)
김운용(공공연맹)

한희숙 30,001 정화려 50,000
권오현 100,000 배규선 1,000,000
미국 이정연 25달러
알래스카 NAM.E 25달러

'98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온 국민의 민주개혁과 국민대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에 인권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집권한 이 나라에 아직도 세계최장기수, 군사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양심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구속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무작위적인 구속도 여전하고 경찰 등 공안기구의 마구잡이 구속관행도 역대정권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약 4개월동안 190여명에 이르는 청년과 학생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감옥에는 40년째 구금되어 있는 우용각씨를 비롯해 430여명의 양심수가 갇혀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가오는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국민정부가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군사독재로부터 파생된 양심수를 어떠한 단서나 조건없이 전원 석방해 희망찬 21세기를 함께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근본적으로 양심수를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인 악법과 구제도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98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998. 8. 6(목) ~ 8. 8(토) ● 장소: 명동성당

● 주요 프로그램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감옥 체험 /

캠페인 선포식(8. 6(목) 오전 10시) /

제24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8. 6(목) 오후 6시-8시) /

제5회 시민가요제(8. 7(금) 오후 6시-8시) /

콘서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작은 음악회(8. 8(토) 오후 6시) 등